

---

# 2022년 제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2. 4. ~ 2. 1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2. 2. 4.	시청률	0.020

### 【총 평】

‘벤처투자 역대 최대,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방안’편은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지난 해 7조 7천억 원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벤처투자는 미래먹거리의 큰 동력으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속에 비대면 분야에 투자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투자에만 몰입하지 않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벤처 투자는 곧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핵심 내용을 통해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한 ICT 서비스와 유통, 서비스업 등이 벤처투자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점을 짚어주었다. 이 밖에 우리 벤처투자 경쟁력을 점검하고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설명했다. ‘터치 핫이슈’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소개했다. OECD 산재사망률 1위라는 기록을 통해 심각성을 짚어주었고, 기업과 정부의 책임감과 법의 제정 목표를 짚어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스텔스 오미크론’이란 바이러스가 세계 57개국에서 확인되었다. WHO는 신규 감염자의 93%가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로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빠르지만 증상은 덜하기 때문에 전세계에는 방역체계를 완화하고 위드코로나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1년 벤처투자 액수가 7조6천억원으로 세계 5, 6위에 해당한다. 전년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것이며, 이는 2017년 이후 4년만에 3배 이상 상승한 실적이다. 벤처투자 세계 4대강국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벤처투자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지만 미래먹거리의 큰 동력이라는 점에서 벤처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CT서비스와 유통, 서비스업 분야의 투자액이 급상승했으며,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평가라 할 수 있다.

수도권이 벤처투자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엔젤투자를 장려해서 지방의 인재들이 활동하기 위한 벤처의 전국적 동시육성은 정부의 중요 과제이다. 양적 긴축 때문에 나스닥과 코스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벤처기업들의 상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 육성책이 필요하다. 총 4,300억 원의 정부의 투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중에서 벤처자금의 유동화가 중요하다. 이에 따른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LP(Limited Partners) 유동화 펀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중소벤처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유동화 펀드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임시직, 일회용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21년 공공행정, 보건복지의 임시직이 증가했는데, 12월부터 상용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도약하는 틀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2. 4.	시청률	0.050

## 【총 평】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 현장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의 활약상을 살펴본 기획이 뛰어났고 '반려견 안전교육 필요'와 '버려지는 배지로 곤충 사육'은 새로운 정보제공과 캠페인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특히, '방역현장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는 주민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예방접종 예약, 발열체크, 지원금 수령, 교통안내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활동 모습을 담아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 긍정적이었다. 또 '반려견 안전교육 필요'는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견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캠페인 효과를 높인 점이 뛰어났다. '버려지는 배지를 곤충먹이로'는 농가의 부가가치 극대화와 환경오염 해소 효과가 눈에 띄었고 '유물로 보는 한글'은 세계기록유산 한글의 역사를 진귀한 기록물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 ■ 방역 현장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 맹활약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을 스스로 돕기 위해 나서는 자세를 통해 부각해 롤모델을 제시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부전화도 담당하며, 선별검사소에서는 차량질서유지 및 안내 업무에 힘을 보태고 있다.

### ■ 개물림 사고 증가 "일반견도 안전교육을"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시대에서 지난해 개물림 사고로 긴급 이송된 환자들은 2,197명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평균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맹견은 물론 일반견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려견이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교육인 복종훈련을 비롯해 산책시 돌발행동 예방 등의 훈련이 필요하다.

### ■ 버섯 재배 후 버려지는 배지 활용한 '곤충 먹이'

배지란 식물이나 세균, 배양세포 따위를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를 말한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버섯 수확 후 당일 수거한 배지와 흑설탕을 섞은 후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곤충먹이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느타리버섯 폐 배지는 한 해 경기도에서만 16만 톤이 나오는데 부패될 경우 환경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 ■ 세계기록유산 '한글'의 역사, 유물로 본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한글을 유물로 찾아볼 수 있는 전시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렸다. '훈민정음, 천년의 문자 계획'이라는 주제로 1,104점을 전시했으며,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창제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1446년 간행된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훈민정음 언해본, 월인석보, 정조의 한글편지, 말모이 원고 등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2. 5.	시청률	0.015

### 【총 평】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의 도약을 보여줌으로써 자긍심과 자신감을 일깨워준 콘텐츠로 향후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 특히 '세계를 홀린 오징어 게임'과 BTS 촬영지'편은 세계인을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성공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한류 콘텐츠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의 주요 장면과 명대사를 소개주고 감독의 기획의도와 제작 배경 등을 살펴본 구성이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했다.

방탄소년단 BTS의 순례길 4곳을 소개하고 '한국의 집'을 탐방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고, '해외 팬들이 보낸 영상편지', '외국인이 가장 가고 싶은 BTS 순례길' 등으로 외국인의 한류 관심과 쌍방향 소통을 이끌었다.

### 【구성 및 내용】

트로트여신 윤수현, 청량아이돌 희수, 180만 유튜버 데이브가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공연 등 K컬처 소식을 전달했다. '오징어 게임'과 'BTS 촬영지'를 다양한 포맷으로 제작한 점이 돋보였고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에 걸맞게 외국인들의 생각과 반응을 잘 담아냈다.

2021년 9월 공개와 동시에 세계를 휩쓴 오징어게임 줄거리를 소개하며, 황동혁 감독과 박해수, 이정재, 오영수 등 출연자 인터뷰와 함께 해외에서 불고 있는 달고나 뽑기 세트, 양은 도시락, 운동복 등 오징어게임 굿즈 열풍 등을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해외 외신들은 물론 할리우드 배우들도 오징어 게임을 극찬했고 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늘었다. 오징어게임 열풍 후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세계 1위를 차지한 연상호 감독의 '지옥'을 소개하며 OTT 시장에서의 K콘텐츠 열풍을 소개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구성이 돋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와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지원, 금융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는 400억 원 규모로 드라마 펀드를 구성하고 제작 지원 사업도 100억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들을 대신해 한국문화를 대신 체험해 V로그로 알려주는 '한국을 달린다 데이브의 V-로그'는 해외에 거주하는 BTS 팬들이 BTS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서울의 촬영장소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에 BTS 순례길 네 곳을 소개했다. '봄날' 표지 촬영지 강릉 주문진 버스 정류장, '버터' 앨범재킷 촬영지 삼척 맹방해변, '봄날' 뮤직비디오 첫 장면에 나왔던 양주 일영역 3곳을 사진으로 소개했다. 네 번째 장소인 빌보드 매거진 커버 촬영지인 한국의 집은 데이브가 직접 찾아 갔다. 데이브는 한복을 입고 부채춤 체험 후 BTS 빌보드 매거진 커버 촬영지를 찾았다. 한옥 안으로 들어가 한국전통 차와 간식을 맛보며 한국의 전통 다례문화를 체험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2. 5.	시청률	0.002

### 【총 평】

‘우리 정원은 언제나 봄입니다’편은 조경가로, 농업경영인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치유정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전라북도 부안의 귀농 8년차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특히 미세 먼지 없는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곳에서 체험 공방을 열고 더 붙어 부안의 특산품을 이용한 떡갈비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부부의 모습을 전했다.

식물에서 미래를 보고 정원을 만드는 부부의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와 식물을 키우는 초록공간에서 늘 변화를 지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인공의 일상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또 ‘농촌 융복합 산업’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밝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제 삶을 채우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부부는 가족의 믿음을 먹고 더욱 성장한다.’는 설명에 공감했다.

### 【구성 및 내용】

요즘은 반려 식물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물에서 미래를 보고 늘 푸른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부는 8년 전 고향 전라북도 부안으로 귀농해 4년 째 치유 정원을 가꾸고 있다. 특히 공기 정화식물을 많이 심고, 한쪽에는 땅을 구획으로 나누어 각 특성 있는 식물들을 나누어 심고 있다. 식물 체험교실도 개최해서 어린이들에게 식물을 이용한 클렌징을 만드는 법을 체험하게 하고 있다.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부부는 3대째 가업인 조경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5평짜리 작은 공간에서 시작해 정원의 규모를 넓혀가며, 체험 학습 공간도 운영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할아버지와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한 아버지에게 매일 매일 배우고 있다는 부부는 야생화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교육농장으로 체험학습과 정원 카페까지 운영하며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까지 받았다.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는 자체를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내가 농사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농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남편은 좀 더 발전적인 농사를 위해 대학교에 입학해 학업을 시작했다. 부부는 부안의 뽕잎으로 만든 떡갈비, 수제버거, 음료 등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해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다. 아내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이 공부했던 것, 혹은 해 온 일이 농업과 합하여지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귀농 8년차 부부는 야생화와 수목들이 뽕뽕이 식재되어 있던 약 3천 평 규모의 농장에 길과 벤치를 만들고 사람들이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정원으로 가꾸고 있다. 흙과 식물을 만지며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길 바란다는 부부는 느리지만 높이 자라는 나무처럼 오늘도 꿈을 조금씩 부지런히 가꿔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2 6.	시청률	0.132

### 【총 평】

‘설날 같은 명절, 남북 기성세대와 MZ세대의 명절 잔소리와 집안일에 대한 생각’편에서는 설명절 문화의 동질감과 차이, 변화를 통한 상호 공감대를 모색해 보고, 남북의 남녀 노소는 결국 ‘하나’라는 한반도 한민족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일깨웠다.

설명절을 맞아 남북의 설날 문화를 깊이 있게 살펴본 시의성 있는 소재가 수용자의 니즈와 부합했고, 명절 잔소리, 집안일 등 남북의 관심사를 다룬 구성이 관심을 유발했다. 북한은 어른이 잔소리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남한에서는 잔소리로 느낀다는 점에서 문화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남녀차별이 심하고 극도로 가부장적이었던 북한 사회의 변화가 흥미로웠다. 특히 명절 잔소리 메뉴판부터 북한의 잔소리 문화, 사회주의 체제상 최고지도자의 연설과 잔소리 개념 등을 전했다. 또 집안일에 대해서는 남자의 집안일 참여인식 확대와 함께 북한의 여성 지위의 향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화제다. 성적, 살, 취업, 결혼 등 어른들의 명절 잔소리에 대해 돈을 내고 잔소리를 하라는 것으로 잔소리를 자제하라는 취지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의 쏟아지는 잔소리중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별 잔소리 메뉴판까지 등장했다. 특히 어른들의 잔소리는 잘되라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듣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북한에서 잔소리 문화는 씨족 사회의 북한 사회에서 세대별로 자리를 따로 잡다보니 세대별 대화가 주를 이뤄 비교적 적다. 오히려 잔소리를 하는 어른이 요즘 어른이라는 인식도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세대간에 겸상을 하지 않아 어른들에게 잔소리를 듣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북한은 잔소리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국가가 주민들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나온 말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요즘 북한 MZ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국가의 방침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명절 집안일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기성세대는 부엌 일은 당연히 여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젊은 세대는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 명절이 되면 상을 차리고 치우는 집안일이 끊임 없다. 하지만 이제는 남자도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에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북한의 경우 1990년 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대기근이 있을 후 사회주의 체제가 휘청거리며 여성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며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 다만 여전히 가부장적 문화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집안일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경제권을 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 진건 사실이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2. 6.	시청률	0.166

### 【총 평】

‘짬순이 여왕’편에서는 아들 셋을 키우며 월급을 모아 재테크에 성공한 평범한 주부의 재테크 기술과 재테크를 위한 종자돈 마련 방법,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하는 저축 요령 등을 들어보았다. 특히 남편의 월급 250만 원 중 125만 원을 저축해서 종자돈을 마련한 그녀는 흔한 배달 음식도 먹지 않고 아들 셋을 18개월까지 모유로 수유하고 이유식도 손수 만들어 먹일 정도의 알뜰한 생활로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니? 절약&청약 꿀팁’에서는 남편의 용돈을 20만 원으로 제한하면서 빚어진 갈등을 지혜롭게 풀며, 경제관념을 확고히 다져 온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소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돈을 마련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꿀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평형과 좋은 구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쟁률이 낮은 매물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려주었다.

### 【구성 및 내용】

‘짬순이 여왕’편에서는 알뜰한 살림법을 알려주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재테크 전문가가 되기까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게부를 철저하게 쓰고 스스로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또한 고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수입의 절반은 저축한다. 특히 최대 재테크 방법은 20대에 일찍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서 20대에 주로 소비하는 일종의 외모 꾸밈 비용, 사고 비용,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소비를 근절하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야 내집 마련의 욕심도 생기고 돈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며 ‘사람은 아이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말해 끈대 할매의 격한 공감을 얻었다. 출연자는 카페 ‘짬순이, 짬돌이 모임’에서 ‘슈퍼 짬 선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대상 상금 50만원에 욕심이 나서 자신이 그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한 절약비법을 바탕으로 응모해 당당히 대상을 수상했고 이후 방송에 소개되면서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고 싶니? 절약&청약 꿀팁’에서 저축의 비결은 부부와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용돈 쓰는 시스템을 가르치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는데, 우선적으로 아이들 앞에서는 어떤 카드든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알뜰한 절약법으로 이제는 로또 맞은 사람 부럽지 않게 부동산도 넉넉하다고 한다. 아파트를 마련하는 첫걸음은 청약통장이다. 만 17세 생일날부터 청약이 유효하며, 경쟁률이 낮은 평수와 구조를 선택해야 당첨 확률이 높다. 또 부적격자의 당첨이 취소된 물건 또는 미계약분(잔여세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연자는 너무 아끼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는 ‘경험할 수 있는 소비’를 한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서 커피 값에 소비하지 않고 몇 차례 모아서 호텔 커피숍에 가서 럭셔리 분위기와 리필의 혜택을 즐기는 것이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2. 6.	시청률	0.094

### 【총 평】

‘5공 초기 반국가단체 조작 -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편에서는 5공화국 당시 정권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좌경용공세력으로 조작하고 인권유린을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 5공 신군부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국을 이끌기 위해 민주투사들에게 불법구금, 무자비한 폭력,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실태를 낱알이 고발해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한 부분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한 그 당시 노동운동 취지와 이들이 지향했던 점을 충분히 부각시키며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인 구성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2012년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 선고를 받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자와 가족에게 사과 등 화해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비극적인 역사의 참상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화해’를 위한 실천적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진실 그리고 화해’의 기획의도를 살린 점이 유의미했다.

### 【구성 및 내용】

1980년 5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에 항쟁하다 계엄군 총탄에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사망한 1년 뒤 전민노련과 전민학련 관련자들이 5.18 망월동 묘역을 참배했다. 망월동 묘역을 예의주시하던 정보기관에 의해 치안본부 남영동으로 끌려가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한 ‘5공 초기 반국가단체 조작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을 조명했다.

이태복씨는 1977년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체계적 이론을 제공하기 위해 광민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구금된 후 전국 민주노동자 연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대에서 시위를 주도한 이선근씨는 이태복씨와 흥사단 아카데미에서 인연을 맺었고 광민사에서 편집일에 참여했다. 그리고 전국민주학생연맹을 결성했고 전민학련을 주도로 1981년 개강 이후 각 대학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후 1981년 6월 10일 이태복씨가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이후 전민노련, 전민학련 관련자 전원이 연행되어 불법 구금되었다. 수사관들은 이들을 좌경용공 세력으로 몰았고 폭력과 고문 등을 통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결국 이태복씨는 무기징역, 이선근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가족들은 석방 운동을 펼쳤고 김수환 추기경, 윤보선 전 대통령 등 사회지도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는 전민학련, 전민노련 사건에 대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공안사건화 했다고 진실규명 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2012년 6월 대한민국 법원은 피해자 전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2. 6.	시청률	0.003

### 【총 평】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다’편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사회적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폐플라스틱이 어떤 과정에서 고래 인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소개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친환경 기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 선택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주인공은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위한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대답했고, 회사 부장은 ‘따뜻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구성 및 내용】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다’편은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업사이클링해서 바다와 고래를 살리는 사회적기업 대표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특히 바다와 해양생물을 괴롭히던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으로 바뀌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새활용’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 또한 시니어 카페에서 시작해 친환경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과정이 공감 있고 설득력 있었다. 사회적기업 대표는 입고 있는 옷도 자신이 개발한 폐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었고,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솜을 채운 고래 인형과 해마 그리고 거북이 인형을 보여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울산은 원래 고래로 유명한 도시로 고래가 각인된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곳이다. 1986년 고래 포경 금지 후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고래와 관련된 관광 장소도 많다. 그러므로 고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울산에서 고래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대표는 지역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하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 2018년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고래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울산이라는 지역적 의미도 되새기고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뜻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만들기로 하고 울산항만공사, 대기업, 국제기구와 협업해서 시작했다. 이곳은 귀신고래가 회귀하는 장소로 바다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곳이 있는데 오염 등의 문제로 최근 이 귀신고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귀신고래의 회귀와 또한 고래가 더 이상 플라스틱으로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래는 물론 다른 바다 생물 캐릭터 인형을 만들고 있다. 인형을 본 외부인들의 반응이 좋았고, 우리의 사업이 고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는 새활용 상품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 지난 한 해 동안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결과 105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했다. 이는 소나무 3천여 그루가 1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2021년 정부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했고, 선정 이유로는 환경친화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해 폐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이다.